

여 “세자녀 대학 무상 교육” 야 “전국민 1인당 25만원”

국힘·민주당 복지 공약 발표

여야가 복지 관련 공약으로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주택, 난입,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낮추는 등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내놓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 지급 제안에 맞붙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존 공약은 이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부부합산 8500만원)과 버팀목 대출(7500만원)의 소득 기준을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이 제각각인데,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바꾸면서 소득 기준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한양대 동문회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난입 지원과 아이 돌봄서비스의 소득 기준도 폐지를 공약했다. 난입 지원은 지자체마다 소득 기준이 제각각인데,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 바꾸면서 소득 기준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 자녀를 둘만 낳아도 정부의 각종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자녀 혜택은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이다.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입에는 보조금이 추가 지원된다.

국민의힘은 두 자녀 가정에도 이같은 다자녀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과 농산물 구입에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세 자녀를 낳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공약도 내놨다.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금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 여기에 들어갈 예산은 1조4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고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 등 ‘현지’로 분류되는 곳을 돌며 지원금 정책을 내놓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2년 동안 살림이 너무 많이 망가졌다”며 “경제는 ‘폭망’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다”며 “한 시간 아르바이트해도 (받는 시급이) 만 원이 안 되는데, 한 시간 일하고 사과 한 개만 받을 수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하지”고 했다.

이 대표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 정도”라며 “윤석열 정권이 해운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 이행에 드는 900~1000조원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광복 기자 kroh@연합뉴스

녹색정의당 “불평등·기후위기·지역소멸 대응”

호남선대본부 출범

녹색정의당이 25일 호남선대본부 출범식을 치르고 본격적인 4·10 총선 민심 잡기에 나섰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 기후위기,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녹색정의당 필수제’를 탑재시켜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선대본부 관계자들은 “높은 물가로 더욱 팍팍해지는 살림살이에 얼마나 고단하신가. 찾아진 기운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얼마나 고통이 크신가”라며 “민생을 지키고 지구를 살리는 정치가 정의로운 정권 심판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복수현결과 극단적 대결

정치, 위성정당과 양당 2중대 정당의 출현으로 탄핵만 남고 공동체의 미래와 비전이 사라지고 있다”며 “녹색정의당은 기후·녹색·노동·평등의 진보적 가치와 힘으로 시민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권 심판에 나선다”고 말했다.

녹색정의당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대학 무상 교육 ▲전남지역 의대 신설과 광주의료원 신설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그린에너지 산업 연계망 구축 ▲새만금 사업 대안환 ▲무상 대중교통 ▲과감한 부채 탕감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녹색정의당은 “대한민국에서 약자의 삶, 시민의 권리가 신장됐다면 그 앞에 반드시 진보 정치의 목소리와 첫걸음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4·10 총선 누가 뛰나

‘민주=당선’ 공식 안통해...지역 이슈 많아 민심 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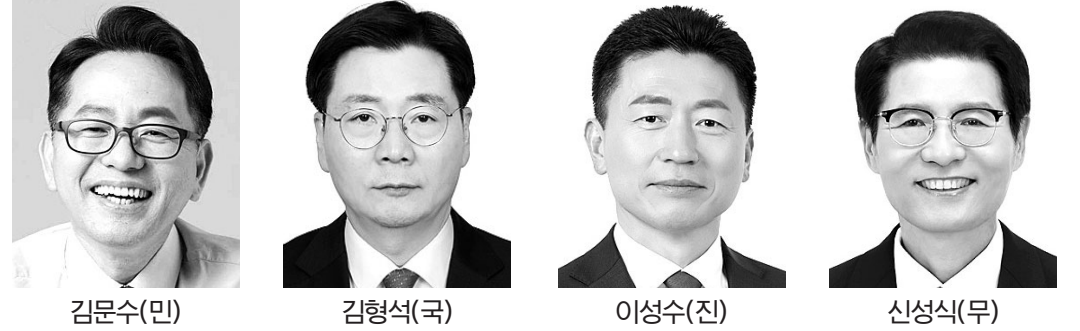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주, 21대서 8년만에 의석 탈환 후보간 차별화된 공약 관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선거구는 최근 소병철 현역 의원의 불출마, 전하람 개혁신당 후보의 비례대표 출마, 총선 선거구 분구 무산 등의 이슈가 잇따르면서 민심이 요동치는 지역이다.

민주당 후보로 김문수 당대표 특별보좌역, 국민의힘에서는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상수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과 무소속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도 뛰어들었다.

순천 민심은 민주당에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민주당(소병철 의원·득표율 58.56%)에게 지역을 맡긴 것도 8년 만이었다. 지난 2012년 19대(통합진보당 김선동·56.40%), 2014년 7월 재·보궐(새누리당 이정현·49.43%), 2016년 20대(새누리당 이정현·44.54%) 국회의원 선거를 겪고 난 뒤에 비로소 민주당에 문을 열어준 셈이다.

지방선거도 비슷했다. 민주당 소속인 허석 전 순천시장이 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까지 10년 넘게 민주당 후보에게 지역을 맡기지 않은 곳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에게 등을 돌



렸던 지역이다. ‘민주당 공천=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도 민주당으로서는 눈여겨볼 변수다. 현역 의원인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민주당 내부부 정치인들의 불협 화음, 무소속인 순천시장과 의원의 갈등, 경선 과정의 부정으로 뒤바뀐 공천자 결정 등이 어떻게 반영될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친명’계 후보라는 이점이 있는 김문수 후보지만 민주당 내 조직을 추스르고 반민주당 정서와 화합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 김형석 후보는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된 순천의 지리적 특성처럼 지역민들의 마음은 특정 정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가 아닌, 지역발전에도 도움 되는 후보에게 향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별교 출신으로 순천고를 나온 김 후보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로 공직에 입문, 통일부 차관을 지냈다. 김 후보는 순천에 의대를 유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다.

진보당 이상수 전남도당위원장은 지난 2014년 진보당 후보로 전남지사와 국회의원 선거(순천곡성), 2018년 전남지사(민주당)에 나선 경험 등을 내세워 “경제와 민생 위기 속에서 가장 고통 받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로 국민 삶을 바꿀 희망을 만들 후보”라며 선포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뒤 무소속으로 출마표를 던진 신성식 전 지검장에 대한 민심의 향방도 주목할 만하다. 순천고를 나온 신진 지사장은 대검 반부패감각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느린 검찰 출신으로, 검찰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은 지역 민심으로부터 차별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지 관심이 쏠린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유권자 성향·현안·여론 천차만별...전남 최대 격전지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민주 권향엽, 경선에서 현역 눌러 지역별 현안 해결 능력 ‘과제’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는 전남 총선의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순천 신대지구·광양 등 도심 지역과 구례·곡성 등 전통 농촌 지역이 합쳐진 도농 복합 선거구로 유권자 정치 성향이나 지역 현안, 여론 등이 천차만별이라 표심 잡기 전략이 치밀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21대 총선을 제외하면 2016년 20대(광양곡성구례)에는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정인화)에 더 많은 지지를 보여줬고, 2012년 19대 때는 통합진보당(순천곡성·김선동), 민주당(광양구례·우윤근) 등으로 표심이 나뉘었던 곳이다.

2014년 7월 재·보궐(순천·곡성) 때는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이래 전남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이정현·49.43%)에 문을 열어줬던 지역이기도 하다.

4개 지역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광양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2022년 8회(광양·무소속 정인화), 2018년 7회(광양·무소속 정현복), 2014년 6회(광양·무소속 정현복), 2010년 5회(광양·무소속



이성용)까지 무려 4차례나 무소속 후보의 손을 들어줄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열은 지역이다. 곡성(2만 6803명), 구례(2만 4270명), 순천해룡(5만 6012명) 을 합한 인구보다 많아 광양 표심이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형편이다.

광양의 정년 인구(18~45세·5만 2882명)와 장년 인구(46~64세·5만 2052명)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2만 3830명)보다 많은 점도 정책 발목을 위한 후보자 간 공략 포인트로 잡는 부분이다.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인 서동용 의원을 경선에서 누르고 공천을 받은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뛰어올랐고 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도 당선을 꿈꾸며 민심을 훑고 있다. 권 후보의 경우 현역인 시 의원이 총괄선대본부

장을 맡을 정도로 조속히 조직 분위기를 원팀 체제로 끌어올리면서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분석이다. 4차례나 무소속 지지단체장(광양)을 냈던 지역이 포함된 만큼 직접 4개 지역 사다 의원들을 찾아가 만나

민주당의 역량과 신뢰를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을 요청했다는 후문도 전해지고 있다.

이정현 후보는 다시 한번 힘있는 여당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열정으로, 광양만권, 섬진강권 대개조를 통해 동부권 발전의 기회를 속명으로 삼아 일하겠다”는 포부를 뒤고 있다. 다만, 지난 2022년 전남지사 선거 때 울린 전체 득표율(18.81%) 중 순천(31.98%), 곡성(40.97%), 구례(22.14%), 광양(22.77%) 등의 득표율을 고려하면 예전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현주 후보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쌓아온 인지도와 나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선택받겠다는 각오로 뛰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펜션 급매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 가기 전

- 대지 1,795㎡
- 건축 282㎡
- 연면적 438㎡
- 수영장 有
- 총 2개동 (객실11개, 히노끼 목조 6개)
- 1개 소매점
- 주차 15대
- 현재 주차장과 정원부지로 사용중인 밭(전) 1,320㎡ (무상양도)

매매가 9억 8천

010-3666-6301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쪽당 및 수목장 수목파 종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교반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소,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오벌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업체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